

## 동양선교교회

### 성도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여덟번째 글

#### **장로들 : 홍목사 3개 제안 제시한일 없는 유언비어 주장 문서 만들어 반대세력을 마귀, 사단이라고 비난**

지난 7월 18일 주일날 박제임스(한국명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은 주보안에 "성도들에게 드리는 소식"이라는 문서를 교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2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그들이 당회장으로 결정한 흥민기목사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단순히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마귀, 사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 한번도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을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동양선교교회의 교인들이며 일을 잘못처리하고 있을 뿐이지 마귀나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같은 교인들을 사단과 마귀라고 문서를 통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극에 달하지 않았나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장로들은 이 문서에서 홍목사가 제안했다는 첫째, 동양선교교회의 이름을 바꿔야하고 둘째, 임동선 원로목사님은 멀리 떠나야하고 셋째, 그동안 동양선교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고소건은 취하해야 한다는 내용은 황당무계한 제안으로 유언비어이며 이는 "확실히 마귀의 짓이며 동양선교교회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거짓 증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흥회 끝나고 장로들과 저녁식사도중 홍목사 3개안 제안 원로 장로, 권사님들 반대 거세지자 반대자들에게 덮어 씌워**

우리는 홍목사가 그 3가지 제안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얘기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홍목사는 부흥회가 끝난 날 시무장로들과 가진 저녁식사 중에 "oriental이란 단어는 비하의 뜻이 있어 미국인들도 쓰지 않는 단어이므로 교회 이름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이유야 어떻든 강준민목사는 전임목사인데 후임인 내가 전임목사와 소송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따라서 소송은 취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박제임스장로는 바로 그무렵 3부 주일 대 예배시간의 기도에서 "임동선목사님을 영원히 우리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원(?)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홍목사의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술은 바로 그들 장로들의 입을 통해 전달됐고 이어 이 내용은 원로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통해 확인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부 원로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그들로부터 이 내용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했으며 아예 홍목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들 장로들은 홍목사의 3가지 제안이 그들이 바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교인들을 설득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저항이 커지자 그런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6월 6일에 홍목사의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나돌았으니 한달이 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달 내내 조용하다가 뒤늦게 이같은 난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 **장로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름 안바꾸겠다, 월로목사님 모시겠다, 재판하겠다” 광고하라.**

우리는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만일 홍목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장로는 교회주보에 “첫째, 동양선교교회의 이름은 영구히 바꾸지 않겠다. 둘째, 임동선 목사님을 원로목사님으로 끝까지 모시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겠다. 셋째, 강목사와의 땅재판을 끝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 줄것을 요구합니다.

## **박제임스 대신 이영송장로가 총대를 맨 까닭은?**

그런데 문제는 왜 광고시간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박제임스 장로가 광고하지 않고 이영송장로가 이 문서를 읽어내려갔느냐는 점입니다. 우선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구긴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이 그 짐을 제3의 인물인 이장로에게 넘긴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이들 6명의 장로들은 “우리만이 아니고 이장로도 우리와 같은 편이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려줘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의 속보이는 계산과 강단에 올라가 자신의 얼굴을 팔아보겠다는 이장로의 평소의 성품이 일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이영송장로가 “홍민기 목사가 제안을 하긴 했는데 별것이 아니다.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진화작업을 해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과연 이장로는 일반 교인들과 한인사회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 즉 제대로 된 인물인가”하는 의문을 낳게하고 있습니다.

**홍목사, “우리교인 4백명이다”는 주장은 거짓, 전 교인 150여명으로 추정**

**꾸준한 사역보다는 옳기고 또 옳기는 성격, 개척해놓고 또 떠날 준비**

홍민기 목사는 우리교회에서 열린 부흥회 설교시간에 서울의 자기교회 교인들이 4백여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했고 홍목사 주변의 목회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 교회의 사무실 직원까지도 교인들이 4백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15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전

체교인의 사진은 76명쯤으로 계산됐습니다. 결국 홍목사는 당회가 주장하듯 “정직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홍목사는 2002년에 한국에 나가 영성교육학 석사를 받고 8년째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주일날 교인들에게 나눠준 문서에서 밝혔습니다.

홍목사는 자기 교회의 웹사이트에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연합신학 대학원에서 영성교육학(석사)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세대인 청소년의 영적 부흥과 회복의 비전을 품고 교육 전문 사역자들과 더불어 2007년에 함께하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설명대로 보면 8년간의 성공적인 목회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그를 아는 서울의 목회자들은 “홍목사는 그동안 부목사로 사역하기도 했는데 한 교회에서 꾸준히 사역하기보다는 잠깐 하다가 옮기고 또 옮기는 그런 타입이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홍목사는 현재의 교회를 개척한지 불과 3년인데, 그것도 일생의 첫 개척교회인데 당장 그 교회를 버리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 **개척교회 3년, 책 몇권 써 낸 2세 전문 탱크목사 보다 명성과 덕망있는 경험많고 은혜풍성한 목회자가 필요하다**

“씩어도 준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양선교교회가 명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개척교회 3년생의 목회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한단말인가 하는 것이 많은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쉬운일은 아니지만 어느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성과 덕망을 갖춘 목사님을 청빙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야 상처로 얼룩진 교인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면서 따뜻한 치유로 다시 번성하는 우리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우리는 교회 이름도 바꾸고 원로목사도 쫓아버리고 소송도 취하시키는 그런 젊은 탱크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2세들을 위한 책 몇권을 쓴 목사님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2세 3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당장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교회 1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온유와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갈라진 교인들을 하나로 이끄러주는 경험많고 은혜가 풍성한 목회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다수 교인들의 솔직한 심정들입니다.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 직접 설교하는 것도 보고 그 교회의 교인들도 만나보고 주변의 목회자들도 만나보는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하물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목사님인데 몇번의 설교를 듣고 “성공적인 부흥회로 큰 영적 충만을 맛보았다”고 호들갑을 떨다니 한심하다는 것이 양식이 있는 많은 교인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감히 동양선교교회에 오겠다는 사람이나 그런 목사님을 즉흥적으로 청빙한 사람들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공동총회 소집공고에 시간과 장소빠져 공고 자체가 무효 공동총회 통과하지도 않은 권사, 안수집사 교육도 불법**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지난 주(7월 18일자) 후보에 “홍민기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청빙하기위한 공동총회가 7/25일(주) 본교회에서 있습니다”라고 광고했습니다. 이 광고에 시간

과 정확한 장소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 제 71조에 따르면 “공동회의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서 당회장이하며 일시, 장소, 안건은 1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후냐? 아니면 3부 예배 후냐? 그리고 본당이나? 아니면 교육관이나? 지금 현재는 6명의 장로들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왜 따지느냐? 전례대로 3부 예배후에 본당에서 할것이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릅니까? 또 그들 장로들은 몰라서 실수로 시간과 장소를 빠뜨렸을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그리고 안건이 정확하게 교회에 공고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회원들도 모르는 애매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것도 자기들의 편리대로 공동총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의 원리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또하나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 장로들의 불법은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달부터 임직자 후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들 임직자를 뽑은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기 공동총회는 열린일이 없습니다. 경찰이 해산하는 바람에 개회조차 못했습니다. 공동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사가 안수를 받거나 권사로 취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된 임직자 후보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이들 장로들의 결정이 불법이며 경우에따라서는 무효가 될 수도 있으며 이때문에 임직자 후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 **서류로 교인명부 달라고 했던 김모집사, 자격정지에 교회출입 불허 규정도 없는데 당회가 싫으면 장로, 집사 구분없이 입맛대로 징계**

지난 7월 7일 박제임스,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흥인 등 6명의 장로들이 지배하는 우리 교회 당회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우리교회의 정확한 교인명부 등 관련 서류를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했던 김모집사(김집사는 정통회 회원도 아니며 평범한 교인으로 단 한번도 폭력적인 행동은 물론 당회에 반대운동을 벌인일이 없는 말하자면 중간계층의 인물입니다)를 아무런 이유와 설명없이 교인자격 정지와 더불어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중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교회 헌법 제78조 2항에 근거하여 당회에서 투표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78조 2항은 “당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갖는다”고 돼있습니다. 이조항중에서 권징 즉 훈계와 징계의 권한으로 김집사를 징계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말 법을 아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무식한 사람들인지? 또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78조의 이 조항은 당회에 관한 포괄적인 조항이고 징계는 그 다음편의 95조에서부터 99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98조의 나항에 보면 제직에게 과하는 벌로 1), 시무정지 2), 시무해임 3), 정직 4), 면직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교인자격정지 더구나 교회 출입 금지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 헌법의 어느조항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 99조는 모든 징계의 대상자와 사안의 징계는 규정에 의하여 책별한다. 이를 위한 징계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헌법이 말하는 “별도의 징계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 따라서 규정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마구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이 싫어하면 그 날로 징계해 버리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느 교회가 한꺼번에 18명의 교인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교인을 다시 또 징계하고 심지어 같은 당회원이 정영식, 안광석 장로를 당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를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있었는지 연구해야 할 정도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처벌하고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교회의 현실입니다.

### **임시공동총회소집 서명자 5백여명, 전체교인의 반수 이상 장로들, 경찰 불렀으나 그들이 우리교회 실정에 개탄**

그동안 우리가 실시해왔던 헌법개정과 시무장로 불신임을 위한 임시공동총회 소집을 위한 교인들의 서명이 벌써 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말 현재 우리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인은 모두 853명이었습니다. 교인들의 반수 이상이 임시공동총회를 열자는데 동의한 것입니다. 이같은 서명 동의는 한마디로 우리교회의 현 당회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들 서명내용을 변호사를 통해 정리,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주일에 교회 파킹장에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을 때 경찰이 왔었습니다. 박제임스(한국명.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장로 등이 신고한 것입니다. 이들 6명의 장로들은 그 전 주에도 경찰을 불렀었습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의 주장은 "당회가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서명작업을 하고 있다. 그들을 교회밖으로 쫓아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 주에 온 경찰은 그들의 주장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우리를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 경관이 왔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이렇게 경찰을 부르는 것은 동양선교교회는 물론이고 한인 사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한심한 일입니다"고 개탄했습니다. 실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번 공동회의 소집을 위한 서명작업은 우리교회 헌법에 명시돼있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헌법 71조 2항에 임시공동회의는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기타 공동회의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사항이 있을 때 등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느 때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서명을 통해서 공동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당회의 허가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서명작업은 당회가 허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경찰을 부른 것입니다. 항상 법, 법하면서 법을 내세우는 이들 장로들이 어찌하면 이렇게도 법에 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교인들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공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때 당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알고 있는 분들은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 **장로들, 여선교회 합동 기도모임도 이유없이 중단**

그들 6명 장로들의 주장대로라면 기도회로 모임을 가질때도 당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장로들은 3개 여성교회가 공동으로 실시해왔던 심야기도회를 아무런 이유없이 폐쇄시켰습니다. 마리아, 루디아, 사라 등 여성교회 회원들은 교회가 어렵고 힘든 때이므로 우리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결정,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2시간동안 본당에서 통성기도시간을 마련,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 박제임스를 비롯한 이들 6명의 장로들은 더 이상 기도회모임을 갖지 말라면서 본당의 전기불을 끄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모임도 당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기도회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건 그리고 이유없이, 그 즉시 없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경찰관 중의 한명이 우리와 대화를 하는 중에 "당신들은 왜 동양선교교회에 다니느냐? 내가 보기에 동양선교교회에 하나님은 없다, 이미 떠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찰관은 경찰에 접수된 각종 정보와 교회에 와서 상황을 직접 보면서 본인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명석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분개, 그러소리 말라고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회의 형국은 거의 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은 6월 21자 한국일보의 여론마당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진정한 기독교인의 행동

사무엘 유/그라나다 힐스

최근 아는 사람으로부터 어느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역사가 오래된 그 교회는 건물에 대한 은행융자를 모두 상환한 재정적으로 탄탄한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한 장로가 교인들 모르게 교회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융자를 얻어서 유용했다고 한다. 또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목사를 해임하고 다른 목사를 선임한 후 아무것도 모르는 후임목사를 강요하고 회유해 다시 융자를 받아 또 공금을 유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난 후 문제가 되자 몇몇 측근들과 짜고 교회 재정에 대한 자료를 감추고 교인들이 보려 하자 법정으로 가자고 위협했다고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비영리 기관이다. 그러기에 모든 재정 내역은 모든 교인이 볼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자료가 명백하고 정확해야한다. 재정이 공개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벌써 교회의 참다움을 잃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 그들은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자신들이 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은 기독교인의 가면을 쓴 교활한 장사꾼밖에 되지 않는다.

그 장로의 추한 행동에 목사와 교인들이 떠났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본다. 나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식으로 회피한다면 또 다른 기독교인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것은 죄를 방조하는 것이다.

보다 나은 신앙을 위해 스스로가 무장하여 부정과 불의에 강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